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5월-B호)



7년의 공부, 나를 다시 알아가는 목회의 길



〈사진: 김두영 목사, D.Min. '14〉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자리한 삼청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두영 목사입니다. 어느덧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을 마친 지 10년이 넘어가네요. 문득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고, 제 목회의 뿌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Claremont D.Min. 과정에 참여하며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이라는 부제 아래 참으로 깊고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사이신 교수님과 선배 목회자들의 권유와 격려가 큰 용기가 되었고, 그 결정은 제 사역의 방향을 바꿔 놓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며, 중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가르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병행하며 참여한 인텐시브 과정은, 과제와 독서로 숨 가쁜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큰 도전은, 이 과정을 통해 제 목회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갈등과 상처, 치유와 화해, 그리고 문화 속에서의 변혁’이라는 실천신학의 키워드는 지금도 여전히 제 목회의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 ‘기독교 이해’와 같은 교양 과목을 강의할 기회도 있었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과 함께한 15년간의 교회 개척의 기간은 제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은 저를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삼청교회는 유서 깊은 이 동네에 자리한, 올해로 창립 116주년을 맞는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만큼이나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도 깊고 단단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저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며,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클레어몬트에서 고민하고 사무쳤던 ‘갈등, 치유, 변혁’의 실천신학이 지금 삼청교회 목회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삼청교회는 지난 역사와 새로운 역사 사이에서 갈등을 품고, 치유하며, 변혁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안에서 클레어몬트에서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두서없는 기억을 적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문 목사님들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사역하고 계시지만, 해마다 모이는 한국 동문회에서 마주치는 얼굴 하나하나가 여전히 배우고 싶은 존재들이고, 참 자랑스러운 동료들입니다. 저 역시 한때 동문회 임원으로 섬겼던 시간을 감사히 기억합니다. 모든 동문 한 분 한 분을 다 언급하진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삶과 사역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클레어몬트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깊은 학문적 유산과 함께 그만큼 두터운 동문의 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복궁 근처 삼청동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들려주세요. 불쑥 찾아오셔도 언제나 반가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정성껏 내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사역과 삶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클레어몬트는 '심'이며 '숨'입니다.



<사진: 박성영 목사, D.Min. '16>

목회, 때론 지지직거리는 '레코드판'

1996년 경기도 여주에서 시작된 목회는 심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숨 쉬며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의 목회는 때론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듯한 등정이기도, 잔잔한 것 같지만 언제 일렁일지 모르는 검푸른 바다의 파도 같기도 하였습니다. 또 따사로운 햇살을 건네주며 미소 짓게 하지만 언제 먹구름이 밀려와 소낙비를 내리는 막막한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1998년 얼떨결에 시작된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목회는 광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며 유학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마주한 밴쿠버의 겨울이 제 목회와 인생의 가장 추운 시절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그 추웠던 겨울을 벗어나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밴쿠버의 광야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004년 봄, 6년 동안의 이민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목회와 인생의 경험은 풍성해지고 깊어졌지만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는 학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심 없이 돌아가는 턴테이블에선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종종 튀어 오르는 '레코드판'처럼 지지직거렸습니다.

클레어몬트, '심'이며 '숨'

2012년 클레어몬트 한국동문회장이셨던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의 사랑과 이경식 부총장님의 배려로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신학함'과 '사람됨'을 넘어 '목회함'의 길을 가다 때론 숨조차 고르지 못하던 저에게 클레어몬트는 '심'이며 '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클레어몬트 강의실과 교정 그리고 채플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수님과 클래스메이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의 코스웍을 마치고 이경식 교수님과 김혜란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2016년, [POSTCOLONIAL PREACHING IN MISSIONARY CONTEXTS : KOREAN PASTOR'S ANALYSIS OF HIS OWN SERMONS. 복음의 상황화를 위한 포스트콜로니얼 설교 연구]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논문 심사가 한창이던 2016년 2월 정동제일교회에서의 부목사 사역을 매듭짓고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은혜로 목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레어몬트가 건네준 갈등과 치유와 변화를 위한 고민과 회복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의 목회는 아마도 여전히 제법 그럴듯한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종종 튀어 올라 지지직거리는 레코드판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클레어몬트의 '심'과 '숨'의 배움으로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수원제일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溫전傳희禧'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8가지 영적실천운동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경식 부총장과 박성영 목사>

새로운 '희禧'를 위한 비전선도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비전선도,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교회
비전선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비전선도, 소망의 인내에 동참하는 교회

온溫

Preaching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히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전傳

Healing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선교하여 복사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희禧

Teaching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영육하여 교제하여
소망의 인내에 동참합니다.

8가지 실천운동

1. 삼으로 드리는 예배운동 '나의 예배 중'	5. 주님의 자상명령 선교운동 '미션톤즈'
2. 속회 회복운동 '우리 지금 만나'	6. 지역사회와 이웃 섬김운동 '따뜻한 손길'
3. 재림기대 기도운동 '뛰어라, 기도의 성령아'	7. 장학사업 확대와 인재양성운동 'D.N.A'
4. 전교인 전도운동 '소.리.체'	8. 영적 유산 상속운동 '주님 품에 온전히'

지성과 영성, 그리고 돌봄의 배움에서 실천으로



〈사진: 김인숙 교수, Ph.D. '19〉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2019년에 졸업한 김인숙 박사입니다. 2025년 3월부로 서울기독교대학교 상담 심리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클레어몬트 동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2011년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해 2019년 겨울에 졸업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역하고, 학기마다 주어지는 과제, 과정 시험 및 논문 작성이라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며 클레어몬트 캠퍼스에서 보냈던 시간과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어느새 제 얼굴에는 작은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힘든 박사과정이었지만 그 순간 함께 했던 동문과 친구들, 그리고 행복했던 소소한 작은 사건들이 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게 클레어몬트는 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또 다른 고향이자 어머니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목회 상담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세울 수 있었으며, 학문의 넓이와 깊이를 넓히고 깊게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삶으로 보여 주신 학생들을 향한 교수님들의 돌봄과 섬김은 학문 너머의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섬김의 본을 따라, 저도 제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실천의 여정 가운데, 저는 한국 사회 안에서 돌봄에서 소외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예방적 접근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지성과 영성, 그리고 돌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삶과 사역, 연구의 자리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열매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클레어몬트를 통해 만난 모든 교수님과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7년의 공부, 나를 다시 알아가는 목회의 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5월에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진용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시작한 2016년 1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경험한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민을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점차 목회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포스트모던 신학은 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체했습니다. 이전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전통과 권위로 포장된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진단하며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수업 때마다 반복하였습니다.

〈사진: 정진용 목사, D.Min. '23〉

가령, 저는 결혼 후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센터를 다녔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다양한 차별과 폭력적인 언어로 저보다 힘들어했을 아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난임 부부들의 아픔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때 배운 부부 상담과 치유 상담에 대해 더 배워서 치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갑자기 조기 은퇴하셔서 3년간은 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공황증세가 생기고 목회적 탈진을 경험하여 목회를 내려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김남중 교수님과 우진성 교수님으로부터 놀이 목회에 관해 소개받고 즐거운 목회,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클레어몬트에 입학해서 졸업하기까지 7년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결핍과 상처를 찾아 재해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클레어몬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전통주의 목회자로 살다가 죽었거나 이미 목회를 그만두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목회의 동력을 잃고 갈등하는 저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이 클레어몬트에서 했던 공부였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열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담임목사로 청빙 제의를 받을 당시,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전통교회이자 고령화된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빈곤한 지역적 특색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갈등과 결핍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클레어몬트에서 배웠고, 증명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임 후 교인들과 함께 먹고, 나누며, 노래하며, 놀다 보니 1년 사이 교회가 놀이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교회 옥상에는 잔디와 꽃이 가득한 정원이 만들어졌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날로 풍성해집니다. 목회자들은 서로 팀 목회를 지향하며 서로에게 배웁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위해 교인들과 함께 촛불과 교회 깃발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가슴 터지도록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일들은 클레어몬트를 만난 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이경식 부총장님께서 우리 열림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게 매우 큰 힘이 되었고, 교인들 모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클레어몬트를 통해 참다운 나를 찾게 되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신학을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멋진 교수님들과 동문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샬롬.